

## 서울 온 中 칭화대 기업집단 쑹쥘 총재

(서울신문 2004.06.26)

서울 온 中 칭화대 기업집단 쑹쥘 총재

“칭화대에는 중국의 각 성이 실시하는 입시 통합시험에서 1~10 위에 속한 우수한 학생들이 진학합니다.또 중국내 대학 중 가장 많은 박사급 이상의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지요.”

동양의 MIT(매사추세츠공대)라고 불리는 칭화(淸華)대학의 기업집단 총재 쑹쥘(宋軍·43)박사가 25 일 잠시 내한했다.동국대와 재단법인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이 공동주최하고 동북아시대위원회 후원 등으로 이날 열린 ‘한·중 과학기술 교류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숙소인 호텔에서 만난 그는 “차이나타운 프로젝트 등 한·중 간의 과학기술 분야에서 다방면의 교류를 모색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밝혔다.그의 방한은 2002 년에 이어 두번째다.

차이나타운은 일명 ‘iChinatown’으로 올 연말 경기도 일산 호수공원

인근의 한국국제전시장 지원시설 부지 2 만 1000 평에 착공될

예정이다.칭화대기업집단이 3 억달러(지분 20% 참여)를 투자하게

된다.화교들이 밀집한 거주·문화공간이라는 기존의 차이나타운과 달리

첨단기업들이 입주한 ‘테크노 파크’ 형태여서 관심을 모은다.

쑹쥘 총재는 “차이나타운에 ‘칭화첨단과학기술센터’를 건립,한국투자의 베이스캠프로 삼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칭화대기업집단은 칭화대 산하 46 개 기업을 총괄하는 지주회사로 이

가운데 6 개 회사가 상장돼 있으며 부가가치는 중국 GNP 의 1%를 차지하지요.”

칭화대의 산학(産學) 성공 사례는 이미 미국과 영국 등지에선 ‘대학경제(University Economy)’란 소재로 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그는 “미국이나 한국과 달리 중국은 기업들이 기술개발을 선도하지 못해 대학이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 정·관계의 실세인 이른바 칭화방(淸華幫)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겸 당총서기,우방궈(吳邦國)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등을 비롯해 정치국 상무위원 9명 중 4명이 칭화방이다.주룽지(朱鎔基) 전 총리도 칭화방 출신.또 차관급 이상에만 100 여명이 포진해 있으며 지난 20 년간 중국의 개혁과 개방을 이끌어왔다.

그는 1979 년 칭화대 역학(力學)과에 입학,84 년에 박사학위를 취득했다.이 대학에서 교수로 있던 98 년 칭화대학기업집단 총재에 임명됐다.

26 일 귀국한다는 그는 고 김선일씨 피살 사건과 관련,“중국내의 인터넷이나 신문 등에서 비난의 글이 쏟아지고 있다.”면서 “테러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중국내 한류열풍에 대해서는 “양국간의 문화뿌리가 비슷하니 바람직한 일이다.”라면서 부인도 머리색깔을 바꾸는 등 한류에 흠뻑 빠져 있다고 웃었다.

글 김문기자 km@seoul.co.kr

사진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기사일자 : 2004-06-26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40626014003>